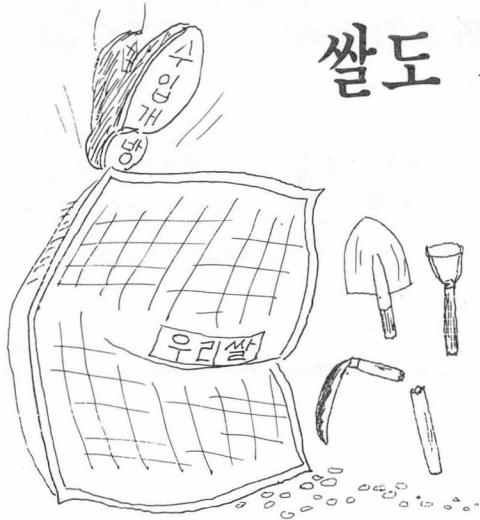


# 농민들의 자리에서 본다



## 쌀도 개방할 것인가?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어 시간이 가면 피로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마련이다.

1978년 쇠고기가 수입될때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제 정신이 아니구먼 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이제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이 60% 가까이 이르고 있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3일 GATT협상 한국측 대표인 제네바주재 한국대사와 미국의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출장중인 상공부장관이 같은 시기에 쌀도 일부 수입개방 할 것이란 발언을 하여 국내에서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7월 1일 GATT 드류의장의 UR농산물협상 초안이 발표된후 들끓기 시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바로 UR협상거부 범국민추진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제네바에서 할복하는 농민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농민들은 UR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갑자기 NTC품목이라는 것을 내놓고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은 사수(死守)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에대한 농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제까지 푹푹뭉쳤던 농민들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감귤농민들이, 닭고기·돼지고기는 국내경쟁력이 있으니 빼고 감귤을 놓자고 주장할 것이다. 또는 콩농민들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 각기 자기 업종이 NTC품목에 들어가기 위해 경종과 축산간 또는 축종끼리 혈투가 벌어졌다.

결국 NTC품목이 15개로 늘어나고 당초 NTC 품목에서 빠졌다가 들어간 작목은 승전가를 부르고, 기왕에 들어있던 품목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UR협상 전면거부에서 NTC품목에 끼게 된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이제는 년차별로 개방예시품목을 발표하는데, 당장 92년에 개방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불

---

‘쌀시장도 일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상공장관이나 제네바 대사의 발언은 개방때 국민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 접종이라는 평들이 많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정협의회에서 즉시 제네바대사를 소환해서 면직시키라는 결정도 백신 후유증이 너무 커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보면 될 것이다.

---

과 9개월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축산업자에게서 관세, 부가세를 걷어 축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농협쪽에서는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 건의서를 내어 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경종농민과 축산인의 대결로 국면이 바뀌어지고 있다.

영세율 적용은 어디로 가고 우리끼리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복통할 노릇이다.

우리는 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기에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쌀시장의 일부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상공장관이나 제네바대사의 발언은 개방때 국민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란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정협의회에서 즉시 제네바대사를 소환해서 면직시키라는 결정은 백신 후유증이 너무 커 후유증 치료제로 보면 될 것이다.

쌀시장이 3~4% 개방된다면 쇠고기의 전철을 밟지 말란 보장이 없다. 쇠고기도 그러하지만, 쌀

시장이 일부라도 개방된다면 쌀농사 농민의 피해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민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쌀은 한국농업의 상징적 존재이고 쌀시장이 무너지면, 「쌀도 무너지는데 우리야 어쩔 수 없지」하고 모든 농민이 체념하고 백기를 들어버릴 것이 문제이다. 싸움에는 사기가 제일 중요한데, 농민의 사기를 꺾어 버림으로 힘 안들이고 점령하려는 높은 단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광역의회 선거가 끝나면 몇 번의 이번 발언과 같은 예방접종이 있을 것이고, 면역이 형성된후 개방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적응되어가고 있음을 말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포자기이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지진때 병상에 누워 있던 많은 환자가 일어나 제 발로 걸어 대피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 난 걸을 수 없어, 난 안돼 하고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누워있다가 지진이 났다는 소식에 자기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려 걸을 수 있었다고 한다.

흔히들 우리나라 축산은 안돼 하며 포기하는데 이것이 문제이며, 이렇게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다.

영국의 시인 일리어드의 말대로 4월은 금년에 도 한국농민에게는 잔인한 달이다. 